

What Should Religious Education Do in the Age of AI?: A Preliminary Study on the Direction of Religious Education for Humans-AI Coexistence

Seok Heo
Wonkwang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seeks to explore the role and direction of religious education in the AI era, proposing an educational path that enables humans to wisely coexist and collaborate with AI technology, preventing human subjugation to it. The main objective is to examine the practical role of religious education in fostering moral values and the subjective power of the human spirit in respons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AI.

[Contents] This research reviews various ethical problems and educational issues arising from the advancement of AI technology, such as deepfakes, algorithmic bias, data privatization, and the deepening of educational inequality. It also examines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ponses, including the EU's AI Act and UNESCO's recommendations. Based on this review, the study proposes three directions for religious education rooted in *Won*-Buddhist thought for the coexistence of humanity and AI.

[Conclusions] Religious education in the AI era must assume the responsibility of safeguarding human dignity within the civiliz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achieving wise coexistence with AI and global symbiosis. By establishing an ethical perspective through the Four Grace, strengthening subjectivity through Developing Self-Power, and cultivating character and spirituality through Mind Study, religious education will contribute to the virtuous use of AI technology and the construction of a peaceful world.

[Keywords] Thought of fourfold grace, Developing self-power, Mind study, AI ethics, Coexistence

* **Corresponding author** Seok Heo (Professor, Department of *Won*-Buddhism, Wonkwang University)
E-mail : qptdori@naver.com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AI시대, 종교교육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인간과 AI의 공존을 위한 종교교육의 방향에 관한 시론적 고찰

허석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는 AI시대에 종교교육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고, 인간이 AI기술에 종속되지 않고 AI와 지혜롭게 공존하고 협력하는 길을 교육의 방향에서 제시하는 데 있다. AI의 급격한 발전에 상응하여 도덕적 가치관과 인간의 주체적인 정신의 힘을 함양하는 종교교육의 실천적 역할을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 딥페이크, 알고리즘 편향, 데이터 사유화, 교육 불평등 심화 등 AI기술 발전이 초래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와 교육 현장의 이슈를 검토하고, EU의 AI Act나 유네스코의 권고 등 국내외의 대응 양상을 살핀다. 이를 바탕으로, 원불교 사상에 근거해 인간과 AI의 공존을 위한 종교교육의 방향을 세 가지로 제안한다. 첫째, 인간 중심 가치관을 재정립하고 기술 윤리를 통합하는 공존의 윤리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AI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방지하고 주체적인 판단력을 키우는 자력양성 교육이다. 셋째, 인간 고유의 역량을 함양하고 AI를 선용하는 마음공부 교육이 요구된다.

[결론] AI시대의 종교교육은 과학기술 문명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AI와의 지혜로운 공존과 전 지구적 공생을 이루어 가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종교교육은 사은 사상을 통한 윤리관 확립, 자력양성을 통한 주체성 강화, 마음공부를 통한 인성 및 영성 함양 교육을 통해 AI기술을 선용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건설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주제어] 사은사상, 자력양성, 마음공부, AI윤리, 공존

I. 들어가는 말

AI가 딥러닝(deep learning) 기반의 인공지능망 기술을 활용하면서 단순한 논리적 연산을 넘어서서 인간의 의사결정을 점점 닮아가고 있다. 향후에는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인공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의 출현을 예고한다. AI기술은 이미지 인식, 자연어 처리, 번역 등 컴퓨팅 작업을 넘어 복잡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작업 자동화를 통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며, 교육·의료·금융 등 산업 전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4차 산업 혁명(Industry 4.0) 기반의 기술인 사물인터넷, 로봇공학, 자율 주행차, 양자컴퓨팅, 나노기술, 생명공학, 3D 프린팅 등 모든 분야에서 AI가 핵심 요소로 자리해 있다(Miao, 2021: 16). 정부와 기업의 거대한 자본이 AI산업으로 모이고 있고,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유발 하라리는, AI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행위자(agent)’로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한다. 이전의 모든 기술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도구이자 인간이 그것으로 무엇을 할지 결정했다면, AI는 스스로 학습하고 변화하며 스스로 결정하고 아이디어를 창조해 새로운 무기·약품·이동 수단, 심지어 새로운 AI를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여론 형성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언론 편집자를 이제는 AI알고리즘이 대신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에서 공적 대화 주체를 결정하고 대화를 형성하는 것은 인간이 아닌 알고리즘이다. 인간의 힘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최초의 존재와 마주하게 된 격인데, 그에 따라 인간에서 AI알고리즘으로의 권력 이동은 매우 중대하고 잠재적 위험이 도사리는 전환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Harari, Kim trans., 2024: 21).

지금의 인류는 “호모사피엔스가 이룩한 현대 문명과 앞으로 AI가 만들어낼 ‘미지의 세상’ 사이”에 있다는 말처럼, AI가 불러올 미지의 변화라는 ‘두려움과 기대 사이’에 놓여 있다(Kim, & Kim, 2025: 10). 즉, AI는 그 효용성만큼이나 여러 기술적·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딥페이크나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정보, 저작권 문제, 알고리즘 편향성, AI의 오남용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소수의 기업과 경제 강국에 AI기술과 데이터가 집중되어 있으며, AI가 점차 인간의 노동과 정신활동을 대체함으로써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도 있다. 이런 측면 때문에, 유발 하라리는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AI에 대한 무비판적인 신뢰에 기반해 금융·군사·언론·정부 관리의 권한을 주려는 움직임에 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AI의 혁신이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AI기술에 종속되는 것도 문제지만, 인류가 오랜 세월 자연과 동물을 지배하고 이용해 온 방식으로 AI를 지배하려 들어서도 안 될 것이다. 인류와 AI가 어떻게 공존할지를 고민하고, 지혜롭게 협력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는 인간과 AI 간의 대립이나 경쟁이 아닌, ‘공존과 협력’을 강조한 진화생물학자 최재천 교수의 주장을 빌린 것이다. 최 교수는 “인간이 인공지능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

나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지구에 저질러온 일들을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제 인류는, AI가 인간보다 더 똑똑해질지 그래서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을지를 걱정하기보다, “AI에게 일을 시키고, 그로부터 창출되는 부와 풍요를 어떻게 잘 나눌지 고민”하며 AI와 협력하는 법을 찾는 편이 더 지혜로운 접근이라고 보았다.

본 논문은 인간과 AI의 공존을 위한 종교교육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급속하고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AI의 발전과 함께 제기된 다양한 윤리적 문제와 그에 대한 대응 양상, 그리고 교육의 주요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 AI가 인류와 전 지구의 미래에 긍정적인 동반자가 되기 위해 종교교육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논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요 활동의 내용과 AI관련 윤리문제, 그리고 교육분야에서의 AI 활용양상과 그에 따르는 교육의 새로운 이슈들을 점검한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인류와 AI와 공생하는 시대를 향한 종교교육의 역할에 대해 살핀다. 주로 원불교 사상에 기반해서 종교교육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AI에 관한 윤리 문제와 교육의 이슈

인류와 AI가 공생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AI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AI의 발전이 불러올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풀기 위한 국가·기업·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논의하고 고민하면서 정책적 실천이 요구된다. 즉, 각국 정부·학계·산업계·시민사회가 지혜를 모아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기반으로 하는 포용적 디지털 사회의 규범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물론 이러한 논의의 핵심에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사회가 무엇을 지향하는가,’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AI를 포함한 과학기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Kim, 2023: 2-3). 또한, AI와 관련된 기술의 효율적인 개발과 사용뿐만 아니라 AI의 발전 속도나 방향, 그리고 그 활용이 초래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Lee, 2022: 3-4).

이에 관한 유럽연합(EU)의 논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EU는 AI규제나 관련된 법안, 윤리지침을 제안하고 있는데, 2019년 AI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2020년 평가목록(Assessment List for Trustworthy Artificial Intelligence, ALTAI)을 마련한데 이어 2024년 3월에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규제법(AI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AI의 위험도를 4단계(Unacceptable, High risk, limited risk, minimal risk)로 분류해 단계별 차등 규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허용불가(Unacceptable)’ AI시스템으로는, 생체인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의 특성을 추론하거나 유추하는 경우, AI시스템이 사람 혹은 특정 집단의 취약성(연령, 장애, 사회적 또는 경제적

상황 등)을 악용하여 사람의 행동을 심각하게 왜곡하여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고위험(High-risk)’ AI시스템에는 적합성 평가, 위험관리시스템, 문서화·투명성 의무, 데이터·기술적 요건 등이 부과되며, ‘제한적 위험(Limited risk)’ 시스템에는 딥페이크나 챗봇과 같이 비인격화, 기만, 조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기술이 포함되며, 생성 AI에는 콘텐츠 출처 표시, 딥페이크 영상에는 AI생성 라벨 부착을 의무화한다(Hyön, 2025). 또한 AI법안에는 AI의 개발과 규제 균형의 맞추기 위해 AI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AI 혁신 패키지(AI Innovation Package)’와 사용자와 개발자의 안전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AI 조정 계획(Coordination Plan on AI)’이 동시에 담겼다(Yoon, & Jo, 2024: 1-3). 이에 따라 AI 기술 발전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되 혜택의 극대화 와 위험의 최소화를 위한 공동의 지침(또는 기준)을 마련해 가는 ‘책임 있는 경쟁력’¹⁾이 강조되고 있다.

AI윤리와 교육적 실천 방안 마련에 선도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유네스코(UNESCO)에서는, 2019년 ‘AI시대의 교육 계획: 도약을 이끈다’라는 주제로 중국 정부와 함께 베이징 국제 인공지능교육회의를 개최했다. 여기에는 각국 정부의 장·차관 50여 명과 100개 이상의 회원국과 유엔(UN), 연구기관, 시민사회의 500여 명의 대표들이 참여했고, ‘SDG42’ - 2030년의 교육과 2030년 이후 교육의 미래’를 기초로 한 AI정책 권고안인 ‘AI와 교육에 대한 베이징 합의’(Beijing Consensus on AI and Education)를 발표했다. 이 합의에는 AI를 활용한 교수 학습 강화, 포용성 및 형평성 보장, AI와 공존을 위한 지침 등이 포함되었다. 한편, 2021년 11월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193개 회원국이 참여한 가운데 ‘인공지능 윤리 권고’(Recommendation on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를 채택했는데, 이 권고안은 AI기술이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윤리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유네스코의 권고안들은 각국의 AI정책과 글로벌 협력의 기본 틀이 되고 있다.³⁾

- 1) 책임 있는 경쟁력은 “AI 시스템과 관련된 사람들이 그들의 디자인, 개발 그리고 이용이 합법적이고, 윤리적이고 강건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마련되는데, ‘EU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 라인’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AI는 3가지 구성요소로서 ①신뢰할 수 있는 AI는 모든 적용 가능한 법과 규칙을 따라야 하기에, 합법적이어야 함 ②윤리적 원칙과 가치의 준수를 보장하기에, 윤리적이어야 함. ③비록 좋은 의도를 가졌을지라도 AI 시스템이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기술적·사회적 관점에서 강건해야 함”(Kim, 2020: 3-4)을 제시했다.
- 2) SDG-4는 UN의 교육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로서 ‘양질의 교육보장(Quality Education)’을 말하며,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기회 증진을 추구한다.
- 3) 한편, ‘인공지능 윤리 권고’의 이행을 위한 국제적 협력 구축을 위해 2022년 12월 체코에서는 ‘AI 세계에서의 포용성 보장(Ensuring Inclusion in the AI World)’을 주제로 제1회 세계 인공지능 윤리 포럼(Global Forum on the Ethics of AI)이 열렸다. 2024년 2월 슬로베니아에서 ‘AI 거버넌스의 지형을 변화시키며(Changing the Landscape of AI Governance)’를 주제로 열린 제2차 포럼에서는 ‘인간 중심의 AI(human-centered AI)’ 개발과 사용을 위한 글로벌 표준 마련을 목표로 ‘AI 거버넌스 및 정책 수립,’ ‘인권 및 기본권 보호,’ ‘성평등 및 포용성,’ ‘국제협력 강화’ 등이 핵심의제로 다뤄졌다.

교육에 관한 유네스코 관련 보고서로는, 2021년에 발표한 ‘인공지능과 교육: 정책입안자를 위한 지침’이 대표적이다. 이 지침서는 베이징 합의를 기반으로 교육 분야에서 AI를 지원하는 정책입안자 양성을 목표로 개발되었으며, ‘정책입안자를 위한 AI소개’, ‘AI와 교육에 대한 이해: 새로운 활용과 혜택·위험성에 대한 평가’, ‘SDG 4 달성을 위한 AI활용 방안’, ‘정책적 대응 방안’, ‘정책 권고’로 구성되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계에서 AI의 활용은 지난 10여 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학습을 지원하거나 강화하는 도구로 주로 사용되었고, 최근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학습에 사용되는 범위나 정도가 더욱 강력해졌다. 교육계에서 AI의 사용은 크게 ‘교육행정 지원’, ‘학생 지원’, ‘교사 지원’의 세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정책입안자를 위해서는 ① 교육 관리 및 수행, ②학습 및 평가, ③교사 지원 및 교육 강화, ④평생학습 분야에서 수요가 있다. 예컨대, 교육 관리와 수행을 위한 AI활용에 있어서는 교육용 챗봇을 활용한 입학 지원, 24시간 정보 제공, 학습 직접 지원의 기능을 수행한다. 학습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들의 성과를 예측하고 학습에 어려움을 겪거나 낙제할 위험에 있는 학생을 식별해 학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평가에 있어서는, 학생의 정규 교육뿐만 아니라 비형식 학습(예를 들어, 악기 연주 또는 기술 취득), 그리고 무형식 학습(예를 들어, 언어 습득) 데이터 등 모든 평가 정보를 수집하는데 AI가 활용된다. 그리고, 교사 역량 강화 및 교수법 향상을 위해서는, 교사들이 수행해온 평가, 표절 감지, 행정 업무, 피드백 등의 작업을 자동화함으로써 업무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한다(Miao, 2021: 17-23). AI가 교육의 형평성·포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특수 교육이 필요한 학습자를 지원하는 AI도구는 다양한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어 교육의 포용성을 높이며, AI기반 로봇은 사회성을 가르치는 학습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 AI활용에 따르는 윤리적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는, 누가 수집된 데이터를 소유하고 접근할 것이며,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공유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개인 정보 보호와 기밀성 유지 여부는 여전히 위험 요소로 남아 있다. 특히 교육 분야의 AI 도입은 교육자의 권한을 지나치게 침해하거나 비인간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예컨대 AI기반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의 감정과 몸짓, 행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의 문제를 야기하며, AI가 교사나 학생을 돕는 활동이 교사-학생 간의 인간적 상호작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교육자의 역할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⁴⁾ 그 밖에도 AI사용과 정보에 대한 격차가 국가 간뿐만 아니라 국가 내의 서로 다른 경제·사회 집단 간에도 상당히 나타나

4) 한국에서는, 2025년 8월 AI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춰져 학교의 의무 채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AIDT를 비롯한 AI관련 교육기기들이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도움을 준다는 의견과, AI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인한 학습자의 사고력, 문장력, 문제 해결력을 저하시키고 학생 상호작용에 제한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는 등 교육의 불공정을 초래하기도 한다(Miao, 2021: 23-24).

이러한 AI시대의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디지털·AI리터러시 및 윤리 교육을 강화 하자는 입장이 일반적이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AI리터러시를 국가 교육 우선순위로 설정 하고, AI시스템의 한계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정보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다. 특히, 생성형 AI시대에는 최적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대화형 명 령어 ‘프롬프트(Prompt)’를 작성하고 설계할 줄 아는 힘, 즉 질문하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것 이다. 또한, 아무리 좋은 질문을 통해 도출된 답변이라도, AI가 제공한 답변의 진위, 맥락의 적 절성 등을 판별하는 비판적 사고와 평가 능력이 동시에 요구된다(Kim, 2023: 29-30).

인간 고유의 역량 함양을 중시하거나, 인문학적 교육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컴퓨터가 데이터·패턴 식별·통계적 추론 분야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역량을 보인다면, 협업·창의력·예비 판단적 사고·공감·상식이나 가치 판단 등은 인간이 AI보다 우월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 러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학의 필요하다는 것이다(Miao, 2021: 26). 또한 현장에서 교육 자나 학습자가 학습에 AI를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AI시대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대비 하는 교육, 학생과 시민들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육학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시대의 교육은 비판적 사고, 협업,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이 중심을 이루어져야 하며, 각 분야의 전문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문학·철학·역사 등 인문학적 가치를 제공하여 반성적 사고를 할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Park, & Park, 2023: 59).

한편, 디지털 전환 담론이 교육을 기술 중심의 효율적 시스템으로 환원시킴으로써, 교육 본 래 가치가 상실되고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AI가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의 역할을 재구성하며 단지 교육의 기술적 환경의 변화를 넘어서서 “교육 주체 간의 관계, 배움의 방식, 교육의 목적 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교육관의 전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AI를 포함한 다양한 기술 이 교육에 접목되면서 “교사는 설계된 흐름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기술적 중재자 역할로 제한되 며, 학습자는 자기경로를 능동적으로 운영하는 자율적 개별 주체로 재구성”되어 “단순한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교육을 구성하는 세계관의 전환을 수반하는 담론적 사건”이 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은 이제 단순한 도구나 매개를 넘어, 교육의 존재 방식 자체를 재구 성하는 실질적 틀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 전환기의 교육 담론은 ‘디지털리터러시,’ ‘AI,’ ‘효율성’ 등이 중심어로 등장하며, 이는 인간을 ‘데이터화 가능한 학습 주체’로 보는 기술 적 인간상에 기초하면서 교육의 본래적 가치인 감응성, 관계적 의미가 소거되고 있다고 비판한 다. 따라서 지금의 교육은 기술 혁신을 수용하되, ‘효율성·맞춤성·자기주도성’과 같은 기술 중심 담론에 의해 주변화되고 있는 ‘상호작용·조용·예측 불가능성’과 같은 관계적·윤리적 실천을 회복하며 배움을 본질적 가치를 재사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말한다(Kang, & Youn, 2025: 48).

III. 종교교육, 인류와 AI와 공생하는 시대를 향한 역할 모색

AI시대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인간의 삶과 세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인류는 ‘특이점’의 시기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기술 주도적 사회 변화는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며, 원불교의 표현으로 하자면 ‘물질개벽에 상응하는 정신개벽’이 요구된다. AI는 교육 관리, 학습 지원, 평가, 교사 업무 자동화 등을 통해 교육의 효율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지만, 동시에 윤리적 문제⁵⁾가 존재한다는 점은 앞서 자세히 다루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인류와 AI의 공존을 모색하기 위해 종교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AI시대에 상응하는 공존의 윤리 기반을 구축하는 일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및 AI리터러시와 윤리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종교교육에도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 학습자들이 AI시스템의 한계를 이해하고, AI가 제공한 답변의 진위와 맥락의 적절성을 판별하는 비판적 사고 및 평가 능력을 중시하며, 단순히 AI사용에 대한 윤리적 이슈를 다루는 것을 넘어 윤리적으로 수행하는 AI를 개발하는 문제, 즉 윤리적 AI구축까지 포함하여 학제적이고 실용적인 성격을 띠어야 한다. 나아가, AI시대의 기술 발전은 인간 중심적 사고와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할 수 있으며,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을 가져온다는 점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종교교육은 기술 지배와 인간성 상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 중심의 가치관을 재정립하고, 기계나 인공지능 우선이 아닌 인간 중심의 기술 문명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AI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 국내의 법제화 노력과도 궤를 같이한다.

다만, AI시대의 도래는 기술적 효율성을 넘어, 인간의 정체성, 가치, 그리고 사회 구조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AI사용에 대한 기술적 윤리 기준을 넘어선 포괄적인 윤리관이 필요하다. 따라서, 종교교육은 AI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AI윤리 교육을 포함하면서도, AI를 포함한 다양한 과학기술 및 사회 분야의 윤리를 통합하는 우주적 차원의 윤리관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한 종교적 윤리관의 한 가능성으로서 원불교의 사은(四恩) 사상을 소개하고자 한다.

사은은 궁극적인 진리가 현실세계에 구현된 양상이자, 모든 존재가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관계라는 의미로서 천지은·부모은·동포은·법륜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원불교의 교조인 소태산(少太山, 1891-1943) 사상의 핵심이다. 원불교 2대 종법사인 정산(鼎山, 1900-1962)은 사은에 대해, “우주의 진리 가운데 상생의 도를 주로 드러내어 우리가 네 가지

5) 대표적인 이슈로는 데이터 소유와 접근, 개인 정보 보호와 기밀성 유지 여부, 그리고 AI 기반 프로그램이 학생의 감정이나 행동을 모니터링해 사생활 문제를 일으키는 점, 편향적이고 차별적인 콘텐츠 습득 가능성, 환각효과 등이 있다.

큰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을 밝혀(Wonbulgyo Jeonghwasa, 1977: 841)”준 것이며, “사은의 큰 윤리를 밝히시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윤리 뿐 아니라 천지 부모 동포 법률과 우리 사이의 윤리 인연을 원만하게 통달(Wonbulgyo Jeonghwasa, 1977: 762)”시켜 주었다고 말했다.

원불교의 사은 사상은 우주 만유의 근원인 일원상의 진리를 바탕으로 하며, 이는 곧 일체 생명의 본성이자, 모든 존재를 하나의 은혜 공동체로 인식하게 하는 철학이다. 이러한 사은 사상은 인간 중심주의 및 개인주의 극복의 철학적 기반을 제공하는데, 인간이 사은의 근원적 은혜에 의해 존재한다는 생각은 인간을 고립된 개체로 보는 근대적 인간관이나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개인주의적 사고를 타파한다(Pang, 2007: 8). 또한 인간이 행해야 할 가장 마땅한 도리는, 나를 둘러싼 모든 존재에 대한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보은(報恩)을 실천하는 것을 삶의 기본 전제로 삼는 실천적 윤리관이라 할 수 있다. AI시대의 윤리 문제가 비단 기술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불평등(사회 윤리), 환경 파괴(생태 윤리) 등 광범위한 영역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우주만유 전체와의 관계를 은(恩)이라는 하나의 진리체계로 통합하여 만물을 경외심으로 모시며 공생·공존할 대상으로 삼는 인생관과 세계관을 확립할 수 있는 것이다.

AI 기술 격차의 심화는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에 형성된 경제적 양극화를 보다 심화시키고 고착화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데,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자리아타(自利利他)의 실천을 위해서는 사은의 동포은(同袍恩)이 말하는 ‘동포’의 의미가 부각될 필요가 있다. 즉 한 가정이나 민족, 나라에 국한된 동포가 아니라 국가와 인종, 인간과 동·식물의 구분을 떠나 모든 존재가 한 진리의 포태(胞胎) 중에 나온 동포임을 자각하는 한편, 동포가 서로 의존하고 돕는 자리아타(自利利他)의 도를 실현해야 하는 관계라는 것이다. 이러한 동포 보은의 실행을 통해 AI시대의 기술 진보가 낳는 불평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약자에 대한 배려와 연대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AI에 의존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행위할 수 있는 자력양성(自力養成)의 교육이 요구된다. AI시대는 인류에게 전례 없는 효율성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인간이 기술에 종속되거나 AI가 초래할 불평등과 정신적 쇠약에 직면할 위험을 안고 있다. AI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주체적이고 지혜롭게 활용하는 힘으로서 자력양성이 필요하며, 이는 원불교의 대사회 불공법인 사요(四要) 중 첫 번째 조목이자 마음공부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덕목이다. 즉, 종교교육은 많은 이들이 기술 문명의 혜택 속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존엄성을 인정받는 평등 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력양성의 정신을 교육해야 한다.

자력이 없이 타력에만 의존하게 되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자력양성은 참된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기도 하다. 오늘날 AI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스스로 학습하고 결정하는 행위자(agent)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간은 AI에 과도하게 의존해 사고력이나 정신력, 생활 속 문제해결 면에서 자립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노예로 살지 않

고 주체성 확립하는 자력양성의 교육이 필요하다. 다만, 일방적인 자력의 강조가 아니라, 자력을 위주로 하되 자·타력을 병진한다는 원불교 자력양성의 본래 취지가 잘 지켜져야 할 것이며, 자력의 범주도 정신 방면에 국한되지 않고 정신·육신·물질 세 방면의 균형 있는 자력이 요구된다.

특히 ‘자력양성의 조목’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여자도 인류 사회에 활동할 만한 교육을 남자와 같이 받을 것”과 “남녀가 다 같이 직업에 근심하여 생활에 자유를 얻을 것이며, 가정이나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동등하게 이행할 것(Wonbulgyo Jeonghwasa, 1977: 41)”이다. 소태산 당대가 일제 강점기임을 생각할 때, 여전히 남녀가 교육받을 권리를 동등하게 부여하지 않는 국가가 있지만, 적어도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성별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사라진 상황에서 새로운 경향으로 나타나는 성차별을 철폐하려는 시도와 함께 남녀를 떠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따른 교육의 격차를 좁혀가려는 공적 영역에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직업에 근심하여 생활에 자유를 얻을 것’을 명시하고 있는바, 향후 AI 발전으로 인해 사라지게 될 직업만큼이나 AI로 인해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거나, 현재의 직업 안에서 AI와의 협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방안을 찾을 뿐만 아니라 AI가 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이 시대의 자력양성법이 될 것이다.

한편, AI로부터의 자립을 기르기 위해, 자신의 육신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자기관리능력 뿐만 아니라 생생한 육신의 활동, 육신으로 느끼는 감정과 경험의 중요성, 육신과 육신이 만나는 인간관계의 중요성, 육신으로 나를 있게 해준 수많은 은혜를 느끼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과 그런 능력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 즉, 육체를 지닌 인간만이 느끼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자연과의 교감, 종교성지나 관련 장소를 직접 방문하는 체험학습을 통해 지식으로 파악할 수 없는 감정과 분위기를 체험하는 교육, 또는 인간 대 인간의 만남에서 오는 다양한 문제를 종교적 관점에서 성찰하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향으로의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는, 인간 고유 역량 함양과 공생의 실천을 지향하는 마음공부, 또는 영성 함양에 관한 교육이다. 앞서, 오늘날 교육의 핵심 역할은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역량을 배양하여 공생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데이터 분석이나 통계적 추론 분야에서는 인간을 능가하지만, 협업·창의력·공감·상식이나 가치 판단 등에서 AI를 앞서고 있으니 이러한 인간 고유의 역량을 함양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불교나 원불교에서 인간을 최령자(最靈者)라고 하는데, 이는 인간이 모든 존재와 평등한 존재론적 위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간만의 고유하고 탁월한 영적 능력을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인간만의 각혼(覺魂),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은혜를 느끼고 알 수 있는 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소태산은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의 정신을 “마음이 두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Wonbulgyo Jeonghwasa, 1977: 46)”라고 했고, 이러한 경지를 열어가는 모든

노력과 과정이 ‘정신개벽’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의 종교교육이 공생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마음공부를 통해 이러한 인간의 정신을 개벽해 가는 구체적인 실천이 요청된다. 마음공부는 인간의 마음을 찾고 길들이며 잘 사용하도록 학습하는 일련의 과정이며, 궁극적으로 원만한 인격을 이루는 공부길이다. 다만, 이러한 마음공부가 AI와 같은 ‘물질 개벽’에 상응하는 마음공부여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데, 원불교의 마음공부 체계인 삼학(三學), 즉 정신수양(定), 사리연구(慧), 작업취사(戒)는 동(動, 일 있을 때)과 정(靜, 일 없을 때)의 상황을 막론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활 영성적 수행법이다. 정산은 과거의 계·정·혜 삼학과 원불교의 삼학을 비교하면서, 원불교 삼학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과거에도 삼학이 있었으나 계정혜와 우리의 삼학은 그 범위가 다르나니, 계는 계문을 주로 하여 개인의 지계에 치중하셨지마는 취사는 수신 계가 치국 평천하의 모든 작업에 빠짐없이 취사케 하는 요긴한 공부며, 혜도 자성에서 발하는 혜에 치중하여 말씀하셨지마는 연구는 모든 일 모든 이치에 두루 알음알이를 얻는 공부며, 정도 선정에 치중하여 말씀하셨지마는 수양은 동정 간에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는 일심 공부라, 만사의 성공에 이 삼학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니 이 위에 더 원만한 공부길은 없나니라(Wonbulgyo Jeonghwasa, 1977: 842-843).

정산의 설명과 같이, ‘사리연구’는 우리 자성의 지혜(즉, 공적영지심)를 밝히고 이치의 대소 유무를 깨닫는 지혜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지혜를 바탕으로 온갖 일과 이치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걸림 없는 지혜의 힘을 얻는 공부다. 이는 AI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참과 거짓, 시비이해(是非利害)를 분별하고 올바르게 판단하는 안목을 키우는 데 필수적이다. 사리연구를 단련하는 훈련과목인 강연·회화·의두·성리 등은 지견을 교환하고 혜두를 단련시키며, 복잡한 현실 문제의 이치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논리성을 기반으로 한 수행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정신수양을 통해 얻어지는 일심은 온갖 욕심을 제거하고 온전한 정신을 얻어 자주력을 양성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욕심이나 분별심, 주착심의 상태로는 제대로 된 판단과 실천을 하지 못하게 되며, AI 같은 고도의 기술이 오히려 정신을 혼란하게 하는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 정신수양은 이러한 개인의 병든 마음을 치료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본래 마음을 잃지 않고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주체적 인간이 되게 함을 의미한다. 또한, 욕심나는 경계를 만났을 때 욕심에 끌려가지 않도록 ‘마음멈춤’을 지속하여 마음을 마음대로 쓰는 힘을 키우는 데 기여하며, AI기술 활용에 있어서도 순간적인 비윤리적 충동을 억제하고 상황과 나를 분리해 객관화함으로써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준다(Cho, & Ko, 2018: 7-8).

소태산은 “정신을 수양하여 수양력을 얻었고 사리를 연구하여 연구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실

제 일을 작용하는데 있어 실행을 하지 못하면 수양과 연구가 수포에 돌아갈 뿐이요 실효과를 얻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정의를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작업취사 공부를 수행의 결실로 보았다. 그런데 취사가 되지 않는 이유로 “일에 당하여 시비를 몰라서 실행이 없거나, 설사 시비는 안다 할지라도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철석같이 굳은 습관에 끌리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는 AI시대에 인간이 겪는 갈등의 원인과도 통하는데, 남보다 더 갖고 싶은 욕심, 시비이해의 충돌, 알고리즘의 작동으로 습관적 사고패턴과 행동양식이 굳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의어든 기어이 취하고 불의어든 기어이 버리는 실행 공부(Wonbulgyo Jeonghwasa, 1977: 49-50)”, 즉 취사공부가 필요하다. 즉, 경계와 감정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감정에 압도되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공익심을 가지고 원만하게 행동할 수 있는 취사력을 강화하는 마음공부를 말한다.

AI시대가 진행될수록, 이러한 마음공부법, 또는 명상이나 마음챙김과 같은 수행법이 종교교육에서 더욱 요청될 것이다. 다만 그러한 명상이나 마음챙김의 교육은 AI를 사용하는 현실에 부합하는 수행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AI시대에 부합하는 명상법을 활용하되, 교육현장에서는 이를 학생들이 체화할 수 있는 훈련프로그램, 반복단련의 과정이 요청될 것이다. 인간이 AI를 활용해 최고의 정밀한 알음알이(지식)을 제공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지식을 내면화하고 인격적으로 체화하는 것을 AI가 해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AI를 통해 제공된 지식을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점검 및 검증하는 능력,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알음알이를 자기 인격으로 체화하는 훈련, 즉 체득의 과정이 종교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IV. 나가는 말

현대 사회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삶의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한다. AI는 교육행정 지원, 학습 지원 등에서 긍정적인 효용성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알고리즘의 편향성, 허위정보 문제, 개인정보 보호, 기술의 오남용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원불교의 개교 이념을 빌려 말하자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해야 하는 시점이다. 종교는 성자들의 근본 가르침에 따라 인간을 바로 세우고, 사회를 정화하며, 평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AI시대의 종교교육은 인류가 AI 기술에 종속되거나, 반대로 AI를 일방적으로 지배하려 들지 않고, AI와 공존하고 협력하는 지혜로운 길을 모색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이에, 인류가 AI와 공존하는 시대를 위해서는 원불교 사은 사상과 같이 존재 간의 상생의 관계를 밝히면서도 통합적인 윤리관이 필요하며, AI에 의존하지 않는 정신과 육신, 생활을 만들어 나가는 자력양성의 공부가 요청된다. 또한 마음공부를 통해 인성을 함양하고 인간의 고유한

정신을 개벽해 나가는 구체적인 교육법이 요청된다. AI를 필두로 한 기술 문명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전 지구적 공생을 이루어 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오늘의 종교교육이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세 가지로 종교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이를 통해 AI에 대한 의존성을 극복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본래 마음을 잃지 않고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주체적 인간이 되게 함으로써, AI기술을 잘 활용하는 지혜롭고 자주력을 갖춘 인간을 기르고,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방향으로 종교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종교가 사회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가파른 탈종교화 현상을 겪고 있다. 종교교육은 잃어버린 종교의 신뢰를 되찾고, 세상에 봉사하는 종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이다. 교육자와 학습자가 교육의 장을 통해 함께 삶에 대한 궁극적인 의미를 찾고, 인성함양과 물질문명의 선용이라는 목표를 포괄하며 인류의 공동선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보편적 종교성 함양을 지향해야 한다. 특히, AI와 기술 문명의 발달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창의성과 공감 능력, 그리고 비판적 성찰을 기반으로 한 관계적·윤리적 실천을 회복하여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물질이 공생하는데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인간 정신의 힘을 키우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교육의 길을 제시함으로써 종교교육은 인류가 AI를 유익하게 활용하고 평화 세계를 건설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Primary Sources]

원불교 정화사 (1977). 원불교전서. 익산: 원불교출판사. (Translated in English) Wonbulgyo Jeonghwasa (1977). *The Scriptures of Won-Buddhism*. Iksan: Won-Buddhism Publication.

[Secondary Sources]

Cho, S. H., & Ko, S. Y. (2018). The Healing of Conflict and the Religious Education in Won-Buddhism,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57, 7-8.

Harari, Y. *Nexus*. 김명주 옮김 (2024). 넥서스. 파주: 김영사.

Hyŏn, S. J. (2025. 7. 3.). The Core of the EU AI Act and the Direction of Korean Legislation. *Pŏmnyul Sinmun (The Law Times)*. Retrieved 2025. 11. 15., from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209430>.

Kang, S. J., & Youn, J. J. (2025). Educational Discourse Reinterpreted through Correspondences

- in the Digital Era Transformation : Network Analysis and Philosophical Interpretation,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35(2), 48.
- Miao, F., Holmes, W., Huang, R., & Zhang, H. (2021).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ducation: A Guide for Policy Makers*. UNESCO, 16; 17-23; 23-24; 26.
- Pang, N. C. (2007). Harmony between the Fourfold Grace Thought and the World, *Won-Buddhist Thought & Religious Culture*, 36, 8.
- 김대식, 김혜연 (2025). 사이 인간. 파주: 문학동네. (Translated in English) Kim, D. S., & Kim, H. Y. (2025) *Between Humans*. Paju: Munhak Dongne.
- 김민정 (2023). 생성형(generative) AI시대의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의 과제 검토. 유네스코 이슈 브리프. (Translated in English) Kim, M. J. (2023). Review of Tasks f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 Foster Digital Citizenship in the Generative AI Era. *UNESCO Issue Brief*, 1.
- 김창화 (2020). EU 인공지능(AI) 윤리 가이드라인 연구. 인터넷법제도포럼 제7차 월례회의 발표자료. (Translated in English) Kim, C. H. (2020). A Study on the EU Artificial Intelligence (AI) Ethics Guidelines. Presentation Material for the 7th Monthly Meeting of the Internet Legal System Forum.
- 박여선, 박태웅 (2023). AI시대? 결국 정치가 관건이다. 창작과비평, 200. (Translated in English) Park, Y. S., & Park, T. U. (2023). The AI Era? Ultimately, Politics is the Key. *The Quarterly Changbi*, 209.
- 윤정현, 조은정 (2024). EU ‘인공지능 규제법(AI Act)’ 통과 의미와 시사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 527호. (Translated in English) Yoon, J. H., & Jo, Ŭ. J. (2024) The Significance and Implications of the Passage of the EU ‘Artificial Intelligence Regulation Act (AI Act)’.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Issue Brief*, 527, 1-3.
- 이상욱 (2022).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 이행과 국제협력, 유네스코 이슈 브리프. (Translated in English) Lee, S. U. (2022). Implementation of UNESCO’s ‘Recommendation on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UNESCO Issue Brief*, 2, 3-4.
- 최재천 (2025). “공포를 넘어 공존으로”. 김대식, 김혜연. 사이 인간. 파주: 문학동네. (Translated in English) Ch’oe, J. C. Beyond Fear to Coexistence. Kim, D. S., & Kim, H. Y. *Between Humans*. Paju: Munhak Dongne.